

# 光州日報



“5·18 왜곡 분노”…인요한 소장 조선대 강연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살인 진드기’ 공포…야외활동 경계령 ▶6

[kwangju.co.kr](http://kwangju.co.kr)

천만송이 장미를 그대 품안에-곡성 장미축제 ▶13

제19492호 1판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음력 4월 14일)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4주기 22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의 분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기념공원위원회가 설치한 이 분향소는 23일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관련기사 5면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정부 SOC 적극적 투자로 벼랑끝 지역건설·조선업 살려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 18년만의 광주회의

전국 14만 상공인의 대표들이 최근 정부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동향에 대해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및 조선업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대 한상의와 공동으로 22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8면〉

상의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엔지

높은 보건의료, 관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철도와 도로, 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며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광공부문의 선박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선박금융공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에서 18년 만에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글로벌 위기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동발표문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국내외의 투자유치 촉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정부가 나서라

광주 5·18단체 등 시민사회 촉구 잇따라

“부정축재 몰수법 6월 국회서 처리해야”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자 1·3면)과 관련, 광주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이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 원 중 미납분 1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 및 검찰 차원의 대

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 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 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진보정의당은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앞서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집권 초기에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추징금 환수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전 전 대통령의 1672억 원을 포함한 고액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채동우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팀, 계좌 추적팀의 인원을 모아 공판송무부 산하에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앞서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집권 초기에 국무총리를 지낸 고(故)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추징금 환수 추진 방침에 대한 입장

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9강 - ‘시골의사’ 박경철

## “이상의 가치 잃은 아이들에 긍정적 세계관을 심어주자”



난 21일 광주시 삼무지구 라마다 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아홉번째 강연자로서 나서 긍정적 세계관과 이상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먼 거리가 남더라도 노력했다는 데 인간은 삶의 목표를 도달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이 예전 이상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지고 유행화된 모습 밖에 없는 것이 문제”

그는 강연에서 “ 역사 속에서 영웅 이란 이상화(理想化)된 나의 모습을 상징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상화된 모습은 가장 육망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의 가치는 육망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내 이상의 방향을 위

해 도달할 수 없더라도 어제와 오늘, 내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당당하고 걸어가는 자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먼 거리가 남더라도 노력했다는 데 인간은 삶의 목표를 도달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이 예전 이상에 대한 자부심은 사라지고 유행화된 모습 밖에 없는 것이 문제”

라며 쉽게 좌절하는 세태를 꼬집었다. 이어 “부정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강하고, 사회를 대립 구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긍정적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

2013 04.20-10.20